

SC 조사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의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2021년 통권 제4호

SC 조사보고서

ESG 공시환경 변화와 상장기업의 대응

— 해외 상장기업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중심으로 —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33) 신관 9층 (07329)
TEL.02-3775-3339 FAX. 3775-2630 www.cgs.or.kr

• 목 차 •

ESG 공시환경 변화와 상장기업의 대응

— 해외 상장기업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중심으로 —

정책연구본부 김선민 책임연구원
(smkim@cgs.or.kr)

Executive Summary

1. 연구배경 1

2. ESG 정보 공시 의무화 2

3. 자발적 ESG 정보 공시체계 3

3-1.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프레임워크 3

3-2. ESG 정보 공시 표준화 4

4. 해외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모범사례 5

4-1.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 다양성 6

4-2. 사회 (Social): 근로자 8

4-3. 환경 (Environmental): 기후변화 10

5. 결론 및 시사점 17

Executive Summary*

- 기업이 직면한 ESG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또는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음
 - ESG 정보 공시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투자자의 ESG 정보 접근 용이, ESG 정보의 질(quality) 개선 등의 측면에서 중요함
-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잘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몇몇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상장기업과 해외 상장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큰 차이점은 정보 공시에 대한 구체성 및 적극성, 그리고 ESG 관련 정책 마련 여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기업은 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GRI, SASB, TCFD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서 권고하는 정량적인 지표만을 공개하는 선에서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해외 상장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는 물론 향후 기업이 목표로 삼은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비재무적 정보 공시체계가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기업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ESG 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국내 상장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경험 여부에 따라 전략을 달리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성적인 비재무적 정보 공시, 정책 마련, 향후 대응 방안 및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해외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회사가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에 모두 담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누구나 회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 향후 목표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향후 자산규모에 따라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서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정량적 지표의 비재무적 정보부터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향후 정성적 지표의 비재무적 정보까지 공시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것을 권고함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연구 배경

- 대내외적으로 ESG 규제 강화, ESG투자(또는 책임투자)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심 증가, 사회적 요구 (소비자의 의식 변화 등)¹⁾, 기후변화 대응 이슈 등 기업이 직면한 ESG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무엇보다,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음
 - 2021년 미국 주주총회에서 ESG 관련 주주제안 상정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평균 지지율 또한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ESG 이슈는 주요 화두였음²⁾³⁾
 - 일본의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기후변화 이슈 등 주주활동 영역을 다양하게 넓히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어 주목을 받음⁴⁾
- 국내를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에서는 ESG 정보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 (또는 비재무적 정보)를 점차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는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은 자명함
- ESG 정보 공시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투자자의 ESG 정보 접근 용이, ESG 정보의 질(quality) 개선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⁵⁾, 일각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시 기준이 없고 ESG 정보 작성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황에서 규제를 통해 ESG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견지함
 - 일례로, 글로벌 기업연합체인 Value Balancing Alliance (VBA)는 지난 7월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전까지 EU는 특정 표준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⁶⁾
 - 미국의 경제단체인 Business Roundtable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의 기후변화 정보 공시 강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해결과제(implementation challenges)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⁷⁾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ESG 공시 의무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된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세계적인 추세가 되기 전까지 공시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힘⁸⁾
-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이하 IFRS)이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를 설립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ESG 공시 기준 마련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⁹⁾

1) 일례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증가하고 있음 (출처: ESG경제, 2021.05.30, "국내 소비자 63%, 'ESG경영이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
 2) 출처: Governance November 2021 Issue 327
 3) 환경이슈와 관련한 36건의 주주제안 중 13건이 결의되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출처: 주석2)와 동일)
 4) Deloitte, 2021, "Deeper Engagement: Investor Behavior in the 2021 Proxy Season"
 5) Philipp Krueger외 3인, 2021, "The Effects of Mandatory ESG Disclosure Around the World"
 6) Value Balancing Alliance, 2021.07.13., "Position Paper on Standardiz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
 7) Business Roundtable, 2021.06.11., "Business Roundtable Responds to SEC Request for Input on Climate Disclosures"
 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도자료, 2021.08.23., "규제 아닌 지원으로 ESG 자율경영 확산 유도해야"

- 빠르게 변화하는 공시 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이에 이 보고서는 기업이 직면한 ESG 정보 공시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기업의 ESG 공시 (또는 비재무적 정보 공시)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국내보다 해외에서는 이미 ESG 정보 공시 의무화가 앞서 진행되었기에 관련 정보 공시 수준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외 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2. ESG 정보 공시 의무화

- 국내외 규제당국은 ESG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및 그린워싱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임
 -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2021년 4월 EU 비재무적 정보 공시 지침(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ESG와 관련한 활동, 성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제도화함
 - **(미국)** 미국의 SEC는 집행국 내 ‘기후 및 ESG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해당 TF의 정책자문가를 임명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의무공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임¹⁰⁾¹¹⁾
 - **(한국)** 국내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
 - 지난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며¹²⁾, 2022년에는 1조원 이상, 2024년에는 5천억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임¹³⁾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자율공시 활성화 단계(~2025년)를 거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화(2025년~2030년)를 적용할 예정이며 2030년 이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임¹⁴⁾¹⁵⁾
- 게다가 코로나(Covid-19) 이후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졌으며,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ESG 정보 공개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음

9) <https://www.ifrs.org/groups/international-sustainability-standards-board/>

10)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1-42>

11)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1-20>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03.22., “'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기대”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01.14.,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4) 주식 13)과 동일

15)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환경 관련 기획·위키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와 관련한 개선 노력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함

- 미국의 기관투자자 단체들은 SEC에 ESG 이슈와 관련한 정보 공시 범위를 보다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¹⁶⁾
- 글로벌 기관투자자인 Blackrock 또한 ESG 원칙 및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함¹⁷⁾

3. 자발적 ESG 정보 공시체계

3-1.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프레임워크

- 자발적인 비재무적 정보 공시와 관련한 대표적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프레임워크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하 GRI),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 그리고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이하 IIRC) 등이 있음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GRI와 SASB는 표준을 제시(standard setter)하는 공시체계로, TCFD와 IIRC는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는(framework developer) 공시체계로 구분함¹⁸⁾
- GRI와 SASB는 모두 정량적 보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전자는 ESG와 관련한 중대성 이슈에 대한 보고를 중시하는 반면, 후자는 산업별 특성까지 고려한 ESG 보고 체계로 동종업계 타 기업과 비교 가능함
 -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 등 대다수의 대형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SASB의 회원(alliance)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 기관투자자는 SASB의 공시 체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⁹⁾
 -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75%가 ESG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공시 체계로 SASB를 꼽았음²⁰⁾
- IIRC와 TCFD는 ESG 정보 공시를 원칙에 기반하여 서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량적 보고 체계인 GRI 및 SASB와 차이가 있음
 - 위에서 언급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대다수 또한 TCFD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확인됨²¹⁾
- SASB와 IIRC는 2021년 6월 합병하여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이하 VRF)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VRF는 기존 IIRC의 공시체계를 토대로 「Integrated Thinking Principles」를 발간함²²⁾²³⁾

16) Reuters, 2021.06.17., "Analysis: Investors ask U.S. SEC for more ESG disclosures as companies resist"

17) DIVE Brief, 2021.09.16., "BlackRock losing 'patience' on pace of corporate ESG disclosure"

18) World Economic Forum, 2019, "Seeking Return on ESG"

19) <https://www.sasb.org/alliance-membership/organizational-members/>

20) Morrow Sodali, 2021.05.11.,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2021"

21) <https://www.fsb-tcfid.org/supporters/>

22) IPE, 2021.06.10., "SASB, IIRC merge to form Value Reporting Foundation"

23) Value Reporting Foundation, 2021, "Integrated Thinking Principles"

<표 3-1-1> 기존 글로벌 ESG 정보 공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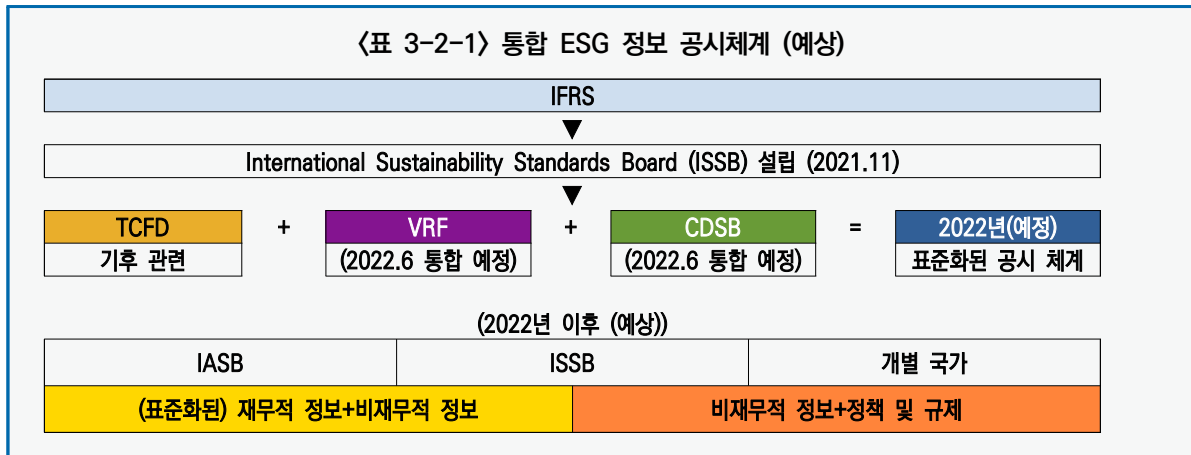
구분	Standard Setters		Framework Developers	
	GRI	SASB ¹⁾	IIRC	TCFD
	Value Reporting Foundation 출범 ('21년) ²⁾			
특징	· 자발적 공시체계 · ESG 정보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 ESG 사안별로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 · 공시 정보 측정 단위: 정량적		· 자발적 공시체계 · 원칙 중심의 정보 공시 · 원칙에 근거하여 ESG 이슈별로 서술하도록 권고 · 공시 정보 측정 단위: 정성적	

1) SASB의 경우 산업별 구분이 추가됨
 2) 2022년 6월, IFRS에 통합될 예정

3-2. ESG 정보 공시 표준화

- 최근 들어 IFRS 주도하에 진행 중인 표준화된 ESG 정보 공시체계는 새로운 공시체계이기보다 기존 공시체계를 통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재무정보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공시체계를 제시한다면, ISSB는 비재무정보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공시체계를 제시함
 - 즉,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 관련해서도 국가별 비교가 가능해짐
- 따라서 표준화된 ESG 정보 공시체계가 출범하더라도 기존 공시체계(GRI, SASB 등)를 근간으로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해 온 상장기업의 경우 정량적인 공시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내년 VRF와 CDSB도 ISSB의 공시체계에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정성적인 공시 측면에서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일례로 VRF가 발간한 「Integrated Thinking Principles」에 따르면, 기업의 지속가능이슈가 가치창출(value creation)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통합적으로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회사의 사업모델(business model)이 지속가능이슈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6가지 측면(1)목적, 2) 전략, 3)위기와 기회, 4)문화, 5)지배구조, 6)성과)에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assessment)하면서 원칙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골자임
 - 무엇보다 이러한 원칙이 ‘회사의 사업모델’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최고경영자(CEOs), 그리고 고위 경영진(C-suite)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보임
 - 또한, ISSB가 표준화된 ESG 정보 공시체계를 완성하면 각국의 정책 및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국내 상장기업의 정량적 지표를 통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 관행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글로벌 ESG 정보 공시 추세가 투자자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기업은 지속가능이슈에 대한 기업의 활동, 대응방안 및 성과, 성과가 가치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ESG 정보 공시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4. 해외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모범사례

- 해외 모든 기업의 ESG 정보 공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분석 편의상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에 한정하여 국내 상장기업이 참고할만한 해외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함
- 글로벌 기관투자자는 이사회 다양성, 근로자(workforce),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요구하는 추세임²⁴⁾²⁵⁾²⁶⁾²⁷⁾
 - 글로벌 ESG 정보 공시체계가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장기업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ESG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해외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모범사례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24) UNEPFI, "World's Largest Investors Step Up Call For Urgent Policy Action on Climate Change"

25) S&P Global, 2018.12.10., "Investors push food companies to act aggressively on deforestation"

26) Benefitscanda, 2017.07.05., "Institutional investors push companies for disclosure on workforce management"

27)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4/26/institutional-investors-lead-push-for-gender-diverse-boards/>

4-1.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 다양성

- 글로벌 기관투자자인 Blackrock은 지난 2020년 상장기업의 이사회 다양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이사회 다양성을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음²⁸⁾²⁹⁾
 - 또 다른 글로벌 기관투자자인 Vanguard는 투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조치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전이 없는 회사의 이사에 대해 의결권 반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음³⁰⁾
 - 국내에서는 이사회 다양성 논의가 대체로 성별에 국한되어 있으나, 해외 기관투자자가 요구하는 이사회 다양성은 성별뿐만 아니라 종교, 인종, 국적, 성소수자 등 까지 그 범위가 다양함
- 국내에서도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국내 상장기업도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³¹⁾
 -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목적과 정책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영국의 주류회사인 Diageo는 이사회 다양성 및 관련 정책 수립의 목적, 정책이 포괄하는 범위, 이사회 및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의 역할 등을 서술하여 공시하고 있음 (<그림 4-1-1> 참고)
 -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이 1)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고려, 2) 다양한 성별의 이사 후보자 고려, 3) 성별 균형을 위한 이사회 내 여성 비율 30% 유지 등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영국의 담배제조사인 British American Tobacco는 홈페이지와 ESG 보고서에 이사회 내 여성임원 비율, 국적 등에 대한 이사회 구성 현황을 명시하여 투자자가 이사회 다양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1-1> 참고)
- 네덜란드의 주류업체인 Heineken의 경우 이사회 내 여성 비율뿐만 아니라 경영진(executive team), 고위 임원(senior management)의 여성 비율을 통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음 (<그림 4-1-1> 참고)
- 일부 국내 기업이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관련 정책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4-1-2> 참고)
 - 무엇보다 기업이 지향하는 이사회 다양성 정책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사회 다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본연의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역할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됨
 - <그림 4-1-2>에서 “다양성 검증 Matrix를 이용하여 이사회 다양성 요건을 확인한다” 정도로 기술되어 있으나, 해당 Matrix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즉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28) BlackRock, “Our approach to engagement on board diversity”

29) 연합인포맥스, 2020.12.11.,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 기업에 다양성 강화 압박”

30) Reuters, 2020.12.15., “Fund leader Vanguard pushes for diverse boards, but avoids targets”

3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이사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대)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1> 해외 상장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정책

출처: Diageo 홈페이지

Our diversity

At the end of 2020, there were 61 nationalities among our senior managers.

We aim to continually improve the gender balance of our Senior Managers, with female representation at senior levels now at 23%.

REPRESENTATION BY GENDER IN %(2020)	MALE	FEMALE
Supervisory Board	60	40
Executive Board	50	50
Executive Team	82	18
Senior Management	77	23

출처: Heineken 홈페이지

The Board promotes diversity and encourages initiatives to improve diversity in senior management roles, in areas including gender, ethnicity and nationality.

Women represent 40% of our Board and seven different nationalities are represented among our Board members: American (2), Brazilian (1), British (3), Canadian (1), French (1), German (1) and Greek (1). Additionally, women represent 15% of our Management Board.

The Nominations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regularly reviewing the composition of both the Board and Management Board to ensure both boards have an appropriate balance of skills, expertise and knowledge, and ensuring that all appointments are made on merit against objective criteria and with due regard for the benefits of diversity.

Our Board Diversity Policy sets out the Board's commitment to the following objectives:

- considering all aspects of diversity when reviewing the composition of, and succession planning for, the Board and Management Board
- considering a wide pool of candidates of both genders for appointment to the Board
- maintaining at least 30% representation of women on our Board, with the ambition of progressing towards further gender balance
- giving preference, where appropriate, to engaging executive search firms that are accredited under the Standard and Enhanced Codes of Conduct for Executive Search Firms, which include gender diversity
- Supporting the oversight of the development of a pipeline of diverse, high-performing potential Executive Directors, Management Board members and other senior managers.

출처: British American Tobacco 홈페이지

〈그림 4-1-2〉 국내 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정책

<p style="text-align: center;">이사회 다양성 정책</p>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21년 6월 29일</p> <p>은 독립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투명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사외이사를 선출한다.</p> <p>1. 사외이사 선임 시 적극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선출한다.</p> <p>가.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회사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되도록 한다.</p> <p>나. 다양성을 폭 넓게 정의하여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후보를 선정하고 임명한다.</p> <p>다. 사외이사 선임 시 성별, 인종, 민족, 출신지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이사회 운영을 지향한다.</p> <p>2.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한 방식으로 사외이사를 선출한다.</p> <p>가. 위원회의 구조 - 위원수의 적절성, 사외이사 과반수 여부, 이사들의 자격, 위원장의 사외이사 여부, 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인식</p> <p>나. 인건의 적정성 - 인건에 대한 구성원과 경영진의 협의, 자료제공의 적시성</p> <p>다. 위원회 운영 - 의사록의 작성 및 회람여부, 위원회 규정준수 여부</p> <p>3. 지배구조와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다.</p> <p>가. 보고서</p> <p>나. 지배구조연차보고서</p> <p>출처: 국내 'S'기업 홈페이지</p>	<p>'이사회 다양성, Guidelines</p> <p>는 이사회가 주주,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두루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사회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p> <p>1. 전문성 보유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수 전문성: 금융, 경영(조직운영), 경제, 법률, 회계 2) 세부 전문성: 글로벌 경영, 디지털, IT,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 등 금융회사 이사회서 필요한 전문성 보유 여부 3) 사외이사 경험: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이해도 <p>2. 다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적: 글로벌 선진 지배구조 구축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이사 후보군 발굴 2) 성별: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양성 기회평등의 원칙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이사 후보군 중 최소 20% 이상 여성 후보군 확보 3) 연령: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경험을 조화시켜 이사회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만령을 기준으로 ±15년 수준 4) 경력 및 배경: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정 출신 편중을 지양 5) 기타: 인종, 종교, 민족, 등 기타 다양성 항목을 고려 <p>3. 추천 경로</p> <p>: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독립적인 이사 추천 경로 활용</p> <p>•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성 검증 Matrix'를 통해 이사회 구성이 상기의 다양성 요건을 고루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p> <p>• 는 대한민국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더해져 이사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p> <p>출처: 국내 'S'기업 홈페이지</p>
---	--

4-2. 사회 (Social): 근로자(workforce)

- Workforce Disclosure Initiative (WDI), Shareaction 등의 기관투자자 연합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와 협력사(supply chain)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함³²⁾
 - 글로벌 자산운용사 Schroders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이슈의 경우 기업들의 대응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자 이슈와 관련한 정보 공개는 미흡하다” 고 지적함³³⁾
- 영국의 소비재업체인 Unilever는 근로자(workforce)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과거 또는 현재 근로환경 정보만 공시하기보다, 향후 개선 방향 및 목표까지도 공시하고 있음 (〈그림 4-2-1〉 ~ 〈그림 4-2-2〉 참고)
 - 국내 상장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체로 근로자 이슈와 관련하여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대표적인 예로 해당연도에 실시한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이수 시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향후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 제공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음

32) <https://shareaction.org/news/over-120-investors-press-big-brands-for-workforce-transparency>

33) 주석 31)과 동일

- Unilever는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향후 근로자 환경 및 공급망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원 활용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음 (<그림 4-2-3> 참고)
- 또한 Unilever는 연도별 근로자(workforce)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들어 글로벌 대형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근로자(workforce) 관련 데이터 공시를 요구하는 추세인데, Unilever는 이러한 투자자의 요구에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³⁴⁾³⁵⁾

<그림 4-2-1> Unilever의 근로자(workforce) 정보 공시(1)

The slide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The left section, titled 'Helping our people become future-fit', features a green vertical bar on the left and a floral illustration on the right. It includes the text: 'Reskill or upskill our employees with future-fit skills by 2025.' and a paragraph: 'What jobs or accountabilities will people be responsible for in the future? Technology such as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ontinue to change the nature of many jobs. Some will disappear, and others will need new skills and ways of working.' The right section, titled 'Flex Experiences', has a white background with blue text. It describes an in-house flexible working programme and includes a quote: 'Flex allows our employees to work on projects for a small or large proportion of time, increase the depth of their current skills or build new skills and experiences in a flexible way.' attributed to Yanpi Oliveros-Pascual, HR business partner. A small note at the bottom states: 'In 2020, more than 20,000 people used Flex to match their skills and capacity with business-critical demand in other areas of the organisation.'

출처: Unilever 홈페이지

<그림 4-2-2> Unilever의 근로자(workforce) 정보 공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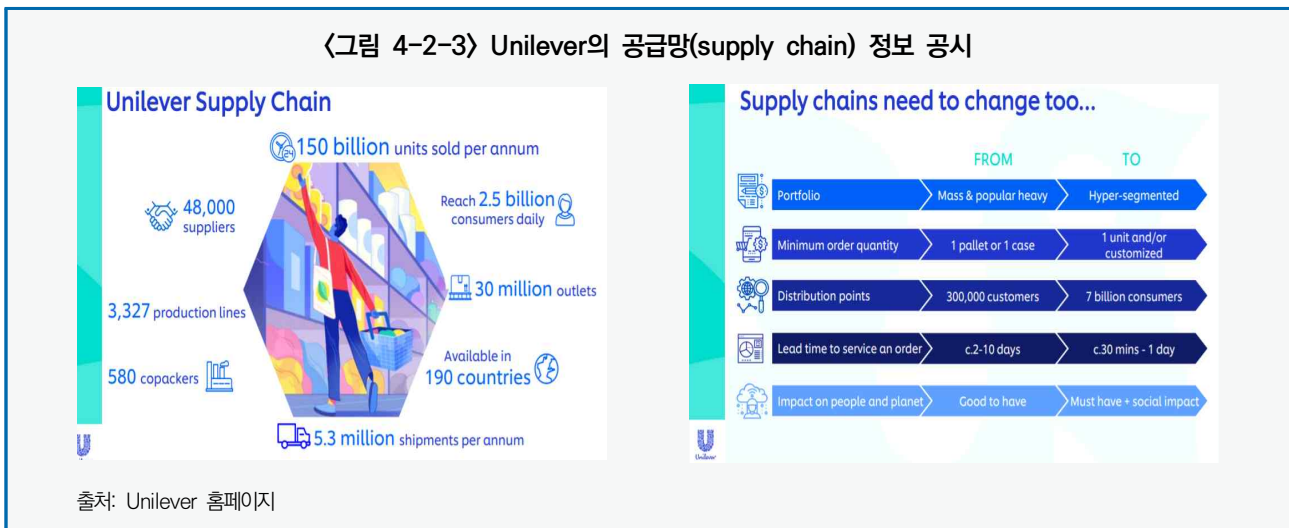
The slide contains two blue panels with white text. The left panel, titled 'Society', includes the text: 'Data on occupational health & safety, key nutrition targets (global and by country) and community investment.' and a list of links: 'Safety at work (XLSX 53KB)', 'Nutrition targets (XLSX 51KB)', and 'Community investment (XLSX 54KB)'. The right panel, titled 'People', includes the text: 'Data on our workforce including workforce composition, gender diversity, learning and development and recruitment and retention.' and a link: 'People performance data (XLSX 44KB)'. Both panels have a small 'i' icon in the top left corner.

출처: Unilever 홈페이지

34) Financial Times, 2021.01.10, "State Street to insist companies disclose diversity data"

35) 주식 30)과 동일

〈그림 4-2-3〉 Unilever의 공급망(supply chain) 정보 공시



4-3. 환경 (Environmental): 기후변화

-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Blackrock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서한을 보내 TCFD 권고안 기준에 따라서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³⁶⁾³⁷⁾
- 대부분의 글로벌 공시체계가 정량적 단위로 환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내용만 놓고 비교해보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정보 공시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보의 질적 수준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임
 - 해외 기업의 경우 ESG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TCFD 보고서 이외에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변화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Sustainability Performance Index등의 통계치를 별도로 제시하거나 기후변화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기도 함
- 국내 기업 중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외에 TCFD 권고안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기업에 한정된 상황이며 해외기업의 보고서와 비교할 때 내용이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음³⁸⁾
- 프랑스 생명보험회사인 Axa의 경우 2015년부터 기후변화 보고서(climate report)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그룹차원에서 새로운 기후 전략(sustainability and climate strategy)을 채택하여 기후 변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Axa의 경우 회사가 (자발적으로) 채택한 기후변화 전략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글로벌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일례로 회사가 직면한 기후변화 리스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 리스크

36) 이투데이, 2020.12.14., “7조 달러 자산' 블랙록의 경고...글로벌 기관투자자들, 기후변화 압박 강화

37) 임팩트온, 2020.07.02., “글로벌 표준 TCFD 적용 기업, 국내 단 5곳 뿐”

38) 데일리임팩트, 2021.12.02., “[2021 ESG 트렌드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SASB·TCFD 녹아든다”

관리 테스트, 리스크 관리가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 반면, 국내 기업(금융업종)은 TCFD 이행 현황을 단편적이고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음

- 국내 TCFD 보고서가 대체로 10페이지 내외로 작성되는 반면, Axa의 보고서는 82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 공시에 적극적이며 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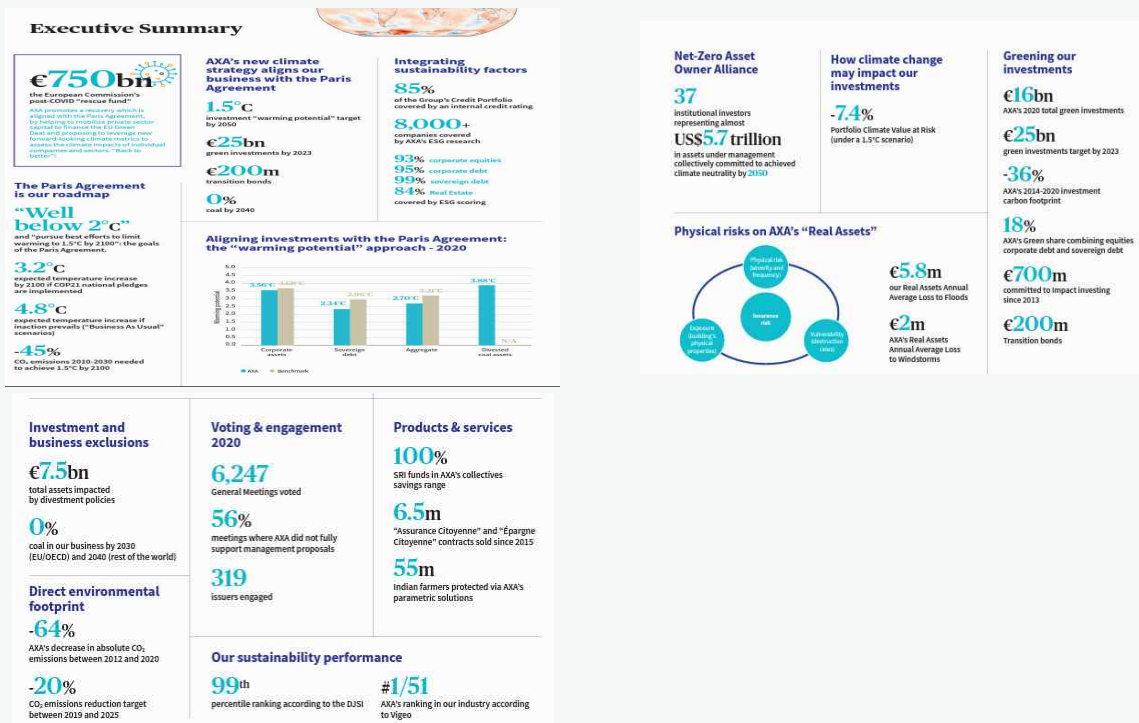
□ (TCFD 이행 현황) Axa는 TCFD 권고안에 따라 이행한 사항을 성과(목표치 달성 수준, 책임투자 규모 등)와 전망(향후 달성 목표, 예상 투자금액 등) 측면에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표 4-3-1> 참고)

○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관련 위원회 또는 실무기구 설립 및 역할, 전략 및 정책 수립 여부 등의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Axa의 사례와 대조적임 (<표 4-3-2> 참고)

-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보다는 관련 위원회 및 실무 부서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성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외 기업의 공시 사례를 참고하여 온실가스 감축 지표 및 목표치 정보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정량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4-3-1> Axa의 TCFD 이행 공시



출처: Axa Climate Report(2021) 보고서

〈그림 4-3-2〉 국내 상장기업의 TCFD 이행 공시

1. 국내 'K'기업

TCFD 이행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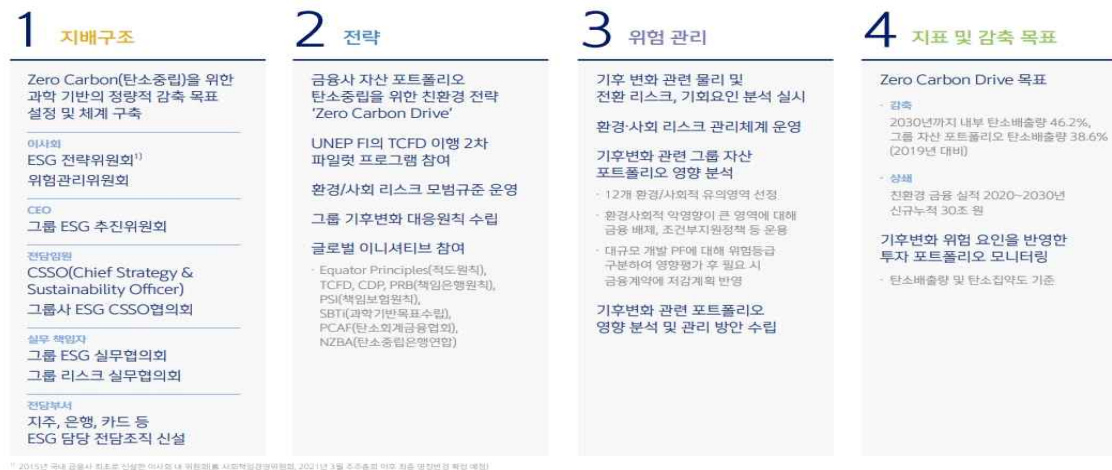


출처: K사 TCFD 보고서

2. 국내 'S'기업

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은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TCFD 지지를 선언한 이후,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TCFD 보고서 또한 공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TCFD 권고안에 기반하여 동아시아 최초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Zero Carbon Drive를 선포하였습니다.



출처: S사 TCFD 보고서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Axa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영위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 관리 방법론, 최근 타기업 소송사례 및 판결 동향 분석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³⁹⁾ (〈그림 4-3-3〉 참고)

39)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한 설명만 12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림 4-3-4〉 국내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공시 (1)

리스크 관리

A/B/C. 가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 평가하고 전사 재무/비재무 리스크 관리체계 전반에 이를 통합하는 프로세스



유형자산으로서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부 사옥 및 데이터센터 관리 조직체계가 운영상의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고, 친환경 시설 건축 및 운영을 위한 녹색구매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전반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CFO 산하의 전사 ESG 관리 인력이 외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검토, 식별하여 단기, 중·장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합니다. CFO는 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 지출이나 자원 확보를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주요 비재무 리스크 관리 방향성 및 투자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사회 내 ESG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CEO 산하 리스크 관리 전담 자원조직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출처: NA TCFD 보고서

위험관리

리스크 정의

환경 리스크
글로벌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전환 리스크에 노출된 업체에 대한 대응 및 투자금의 손실 증가 또는 투자자산 가치의 하락 등 (온실, 금융투자, 정부사 등)

물리적 리스크

자연재해, 장기적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실물부문의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

침수,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박가치의 하락 (온실, 금융투자, 정부사 등), 기후 관련 질환 증가 등에 따른 보험 지급금 규모 증가(정부사) 등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환경·사회적 영향이 큰 프로젝트, 피어낸싱에 대해 환경·사회 위험을 평가, 필요시 결감방안을 금융계약에 반영하는 관리 절차를 운영합니다.

환경·사회 리빙

그를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구준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상 환경·사회 리빙을 실시하고, 리빙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향을 파악하여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프로젝트 개요 파악
- ① 환경·사회 측면의 위험등급 분류
- ① 환경·사회 영향 평가 등을 참고하여 환경·사회 리빙 실시
- ① 필요 시 결감대책을 금융계약에 반영
- ① 시후 모니터링

적도원칙

2020년 9월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하였습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이란,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약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분류 필요 (A ~ C 등급)
- ② (등급에 따라) 환경·사회 영향평가 실시 / 관리시스템 구축 / 액션플랜 수립 / 모니터링 실시
- ① 금융 작성서 반영 (합의사항 준수 등) / 적도원칙 이행 현황 평가 보고 / 정보 공개

업무 계획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관리를 위한 한도 설정 및 관리

예산 및 투자 의사결정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요인 반영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식별 및 관리

Zero Carbon Drive 추진을 위해 탄소 배출량/입력도 등 관련 지표 측정을 통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리스크 식별

그중사설 배출량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그룹사별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탄소입력도, 고탄소배출 저탄소배출량, 탄소배출량,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환경·사회 측면의 유의영역 모니터링

* 12개 유의영역 (온실,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업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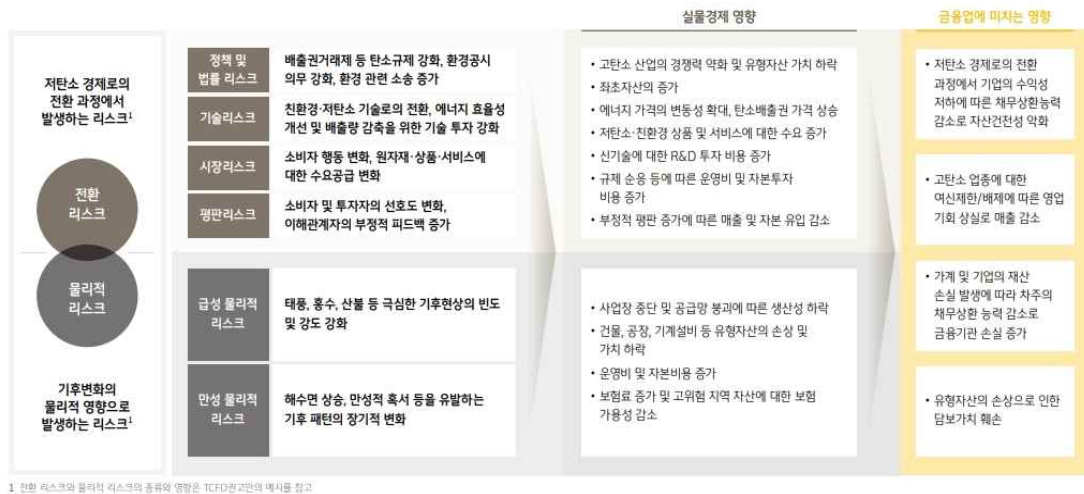
리스크 대시보드를 통한 사전적 알림 모니터링 지표배출량, 입력도, 평가 등 핵심지표 등 기후변화 관련 ESG 요인 반영
↓
기후 리스크 대시보드 내 통합 관리

출처: SA TCFD보고서

<그림 4-3-5> 국내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공시 (2)

기후 변화는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한국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관련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리스크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간의 피드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를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하고 잠재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파악하고 있으며 기후 리스크를 전사 리스크 관리 및 사업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기후변화 복원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의 종류와 영향은 TCFD 권고안의 메시지를 참고

출처: KSA TCFD보고서

- (경영진 및 이사회) 무엇보다 Axa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환경 이슈에 대한 경영진의 메시지를 직접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도를 높임 (<표 4-3-6> 참고)
- 최고이사결정권자인 경영진의 메시지는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진의 생각, 회사의 개선 노력 등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정보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Unilever는 서한 형식으로 이해관계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CEO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장의 견해까지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

〈그림 4-3-6〉 해외 상장기업의 환경 이슈와 관련한 경영진 및 이사회 메시지

Editorial

Net-Zero must remain our horizon

What are the new issues which we highlight in our 2021 Climate report? We deepen our analysis of the "investment temperature" concept and how it relates to the real economy, but we also explain why new alliances must be launched to tackle collective concerns.



Alban de Mailly Neske
AXA Group Chief Risk and Investment Officer

Metrics matter

AXA promotes "portfolio alignment" with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based on the concept of "investment temperature". This is not a KPI technicality, it is a key issue that deserves attention: how can we identify transition models and evaluate their impact on climate change? If we use carbon footprinting KPIs, we know where present

investments and underwriting efforts. But we cannot fully "align" in a "misaligned" world. Should our 2020 investments be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world, this years' report shows that we are heading towards a 2.7°C future. This figure shows the road ahead: our success in improving our "temperature" will increasingly depend on shifts that we can encourage but that we do

both excessive optimism and pessimism. We have significantly expanded our analysis of climate-related Property insurance impacts, better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main drivers of insurance risk: physical hazard, asset exposure, and vulnerability, as well as researched the relatively virgin territory of climate-related litigation risks.

출처: Axa Climate Report (2021)

Dear Shareholder,

The origins of Unilever go back over a hundred years. As we look forward to the century ahead, it is clear that climate change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lives of all our stakeholders.

The climate crisis has for too long been misunderstood as a future environmental crisis. It is without question a socio-economic crisis impacting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millions of people today. Climate change impacts harvests, the availability of clean water, and life-threatening extreme weather events are increasingly common. In fact, without decisive action on a global scale, climate change is perhaps the biggest risk to our purpose to make sustainable living commonplace.

In December 2020, the Unilever Board announced its intention to put a Climate Transition Action Plan before shareholders and seek a non-binding advisory vote on the company's ambitious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the plan to achieve them. We propose to report annually on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lan, and to submit an updated plan for an advisory vote at the AGM every three years, noting any material changes we have made or propose to make.

Our Climate Transition Action Plan sets out the steps the company will take to reduce emissions to zero within our own operations by 2030 and to net zero across our value chain by 2039. Given that we expect emissions to be priced by governments, we believe that early action to drive aggressive reductions in emissions will lead to a more competitive business overall.

continued...

출처: Unilever Climate Transition Action Plan (2021)

Cross interview: Denis Duverne and Thomas Buberl looking back and forging ahead



Denis Duvern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omas Buberl
Chief Executive Officer

On the occasion of the publication of AXA's sixth Climate/TCFD report, AXA Group CEO Thomas Buberl and Chairman Denis Duverne exchange views on six years of climate action, as well as the challenges ahead.

How do you reflect on the past year, strained by the COVID-19 crisis?

Thomas Buberl - In 2020 we faced a crisis that was unprecedented in form, scale and impacts. The ongoing consequences on society and business will leave a mark for many years if not decades. AXA has emerged from the crisis robust and confident of the choices that have guided us since 2016 and served as the basis for our new Driving Progress 2023 strategic plan. This plan reflects AXA's purpose defined in 2019: "to be the business partner

TB - During COP21, we also declared that runaway climate change may create risks so large that conventional market mechanisms may no longer be suitable. Why is this important? Because we are first and foremost an insurer, and climate change is a concern on both the asset and liability sides. This is why, only two years later we decided to extend this approach to our insurance business by restricting underwriting for coal-related businesses. Again, this was a pioneering move then, but it has become rather mainstream today.

Our teams are also working on a "green business" strategy, and on a daily basis our underwriting teams support clients that need to transition towards more sustainable business models. We are much more carrot than stick! And we also exert discernment when looking in between green and brown, because the transition is not a binary affair.

Did you encounter dilemmas and challenges along the way?

We know the economy-wide shift to net zero emissions will require a greater and deeper level of engagement between companies and their investors. In setting out our plan, we hope this increased level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ll strengthen this dialogue and encourage other companies to follow suit.

As we pursue our bold vision to be the global leader in sustainable business, demonstrating how our multi-stakeholder model drives superior performance, the plan reinforces our confidence that ambitious climate action will create value for our stakeholders.



Nils Andersen
Chairman
Unilever



Alan Jope
CEO
Unilever

5.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상장기업과 해외 상장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큰 차이점은 정보 공시에 대한 구체성 및 적극성, 그리고 ESG 관련 정책 마련 여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 상장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는 물론 향후 기업이 목표로 삼은 지속가능성 이슈까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한 가지 글로벌 ESG 정보 공시체계에 국한되어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기보다 다양한 글로벌 ESG 정보 공시체계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정보를 공시하는 경향이 있음⁴⁰⁾
 - 아직 ISSB가 표준화된 ESG 정보 공시체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글로벌 공시체계를 통합하여 제시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수의 글로벌 ESG 정보 공시체계를 활용하는 해외 기업은 변화하는 ESG 정보 공시환경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반면, 국내 기업은 주로 GRI, SASB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제시된 정량적 지표만을 포함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다양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더라도 해외 기업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공시 범위 및 내용이 제한적이었음
 - 또한, 해외 기업의 경우 이사회 다양성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국내 기업은 관련 정책의 보유 여부만을 기술하거나 정책을 공시하더라도 그 정책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⁴¹⁾
- 무엇보다 변화하는 비재무적 정보 공시체계 환경에서 국내 상장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경험이 있는 기업과 발간 경험이 없는 기업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 대상기업에 속하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710사 중 비재무적 정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기업은 148사였으며, 이 중 106사가 코스피200에 편입된 기업이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이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비재무적 정보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체로 GRI, SASB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근거하여 정량적인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외 기업의 공시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⁴²⁾
 - 다만, 정성적 지표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정책 마련, 향후 지속가능성 이슈의 대응 방안 및 목표

40) 영국의 British American Tobacco는 홈페이지에 GRI, SASB, WEF ESG Index의 공시 체계를 모두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General Electric과 Coca-cola의 경우 GRI, SASB, TCFD의 체계를 반영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41) 정책에는 회사가 추구하는 이념,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국내 기업의 경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됨

42) 공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재무적 정보 공시 수준에 관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정량적인 비재무적 정보 공시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해외와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저자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비교하여 판단한 결과임을 미리 밝힘

설정)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만 의의를 두기보다,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누구나 회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 향후 목표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음
 - 해외 기업은 사회·환경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성과 데이터(sustainability performance data)를 연도별로 제공하기도 함
 - 회사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에 모두 담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해외 기업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자산규모에 따라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서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가장 먼저 정량적인 비재무적 정보 지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정보부터 공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SC 조사보고서 2021년 통권 제4호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저자 : 김선민
발행인 : 심인숙
발행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대표전화 : 02-3775-3339
홈페이지 : www.CGS.or.kr / sc.cgs.or.kr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SC 조사보고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인용 및 복제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공익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복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 cgsweb@cgs.or.kr을 통해 사전 승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단순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 기관, 보고서명, 저자 등에 관한 출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 조사보고서는 http://sc.cgs.or.kr/resources/trends_list.jsp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